



남원의료원, 멘토-멘티제 개선과제 발굴 워크숍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숙초의료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멘토-멘티제 개선과제 발굴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멘티 협력 프로그램으로, 멘토 기관인 남원의료원과 멘티 기관인 숙초의료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남원의료원은 멘토 기관으로서 운영 평가 저조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참고할 수 있는 본원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 멘티 기관인 숙초의료원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도출한 개선과제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확정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자원봉사센터, 상·하반기 정례 간담회 운영

군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민재)는 지난 30일 오전 11시에 센터 강당에서 지역 자원봉사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2026년 상반기 자원봉사단체장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단체장 정기 간담회는 지역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통의 자리로,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1월, 연 2회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군산자원봉사센터의 월간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에 바란다', '자봉단체에 바란다' 순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남부안농협, 신규조합원 역량 강화교육 실시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30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조합원 50여명의 대상으로 조합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조합원 교육은 '남부안농협 사업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협동조합의 이해'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신규 조합원이 남부안농협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협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남부안농협은 조합원 실익 증진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월명초 학생들,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전북대학교병원 저소득층 소아 환자 치료비로 지정 사용 예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군산월명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지구를 지켜라 아너바다 장터' 바자회를 직접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아 환자들의 치료에 보태고 싶다는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탁된 발전기금은 저소득층 소아 환자 치료비로 지정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미용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미용 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병원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 실장이 학생들에게 발전기금의 의미와 사용처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직접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해 준 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도 더욱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도민일보 노정철 장수지시장, 지역 인재 육성 위한 귀한 나눔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전달

장수군은 전북도민일보 노정철 장수지시장(재)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장수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온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가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언론이 단순한 보도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돼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노정철 지시장은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결



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상생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학사업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농협, 제1회 조합장배 조합원 파크골프대회 성료

김제농협은 지난 29일 김제시 죽산파크골프장에서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제1회 김제농협 조합장배 조합원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제농협에서 첫 개최한 조합원 파크골프대회로, 조합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강대연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에는 남자부 40명, 여자부 30명 등 총 70명의 조합원이 선수로 참여했으며, 남자부 10개 조, 여자부 8개 조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남녀 개인전 18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치러졌다.

특히 남자부와 여자부 각각 3위까지 입상한 선수에게는 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남녀 입상자에게 출원원상, 아깝상, 참찰했어요상 등 다양한 시상상을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의료시설 맞춤형 화재예방 컨설팅

남원소방서는 6월 30일, 남원 성일병원에서 현장 안전 점검 및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의료시설의 화재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남원소방서장과 예방안전팀장 등 소방관계자 3명과 의료법인성일의료재단 남원성일병원(대표원장 권영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이형철 행정과장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논의 및 점검 내용으로는 △병원 내 소방안전관리실대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거동불편 환자의 원활한 대피를 위한 맞춤형 피난계획 수립 당부 △화재 시 초기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 강조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의료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6월 29일,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시설(병원) 대형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원시 산곡길에 위치한 다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요양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 지상층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5명 사상자와 10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한 극한상황을 부여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일성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000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통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